

KISS Guide Book

독보적인 수능영어 입문서!

Shean.T(션티)

- 고1 당시 영어 모의고사 5등급
-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4년 장학
- 국내파 통역장교, 4성장군 통역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
- 최초 수능영어 주간지, 주간 KISS 저자
- 오르비 베스트셀러,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 저자

- 인강) 대성마이맥
- 현강) 대치 이강, 강남/대치 오르비, 서초/대치/분당 명인

* 검토: Hyun Jin

* 디자인/편집: Seong Gyun / Chae Hyeon



KISS 영어연구소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Guide Book

이 책은 셉티 교재 및 강의를 처음 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은 고1 때 영어 모의고사 5등급을 받던 사람이, 고3 때는 1등급을 받고, 삼수 때는 밥먹듯이 100점을 받고, 대학에 와서는 수능영어를 넘어 영어의 끝판왕인 professional 통역사(통역장교) 까지 이룬 사람이 쓴 것이고, 무엇보다 최근 몇 년 수능영어 출판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굳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수능영어의 각 분야에 대한 셉티의 insight와 direction이 담겨있습니다. 잘 램독하셔서, 수능영어 및 셉티 교재, 수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길 바랍니다.

* 이 책은 대성마이맥(mimacstudy.com)에서 셉티의 강의와 함께 학습하면 더 좋습니다.

I CONTENTS

Intro P. 4

Chapter 1 어휘 P.10

Chapter 2 구문 P.28

Chapter 3 독해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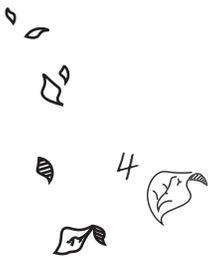
키스 가이드 북



INTRO A: 수능영어란 무엇인가?

수능영어가 아닌, 영어에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이 있다. 앞 두 영역은 수동적 활동, 뒤 두 영역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수능영어는 이 4개의 분야 중 reading, 즉 '독해만 물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평가원' 듣기는 이 교재 / 수업을 학습하는 학생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럼에도 듣기가 부족한 친구라면 지금 당장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의 듣기 저자이기도 한 김희훈 저자님의 듣보잡을 구매해 학습한 후 올해 EBS 영어듣기 교재를 부단히 학습하시길 바란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수능영어를 한다는 말은 '영어독해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영어로 된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위 문장을 좀 뜯어보자. 둘로 나누면 '영어로 된 하나의 지문을 읽고 /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행위가 된다. 수능영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지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영어를 모르면 애초에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그러니 제발 어휘 암기와 문장 해석을 게을리 하지 말자.**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할 줄 모르는데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사기꾼이다. 영어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는데 문제를 푸는 것과 히브리어 문제를 푸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수능 지문의 모든 단어를 알고, 모든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정 수준은(지문의 7, 80% 이상) 단어를 알고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키스 가이드 북



고2 지문과 고3 지문, 그리고 수능 지문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내가 고2 때 지문 단어, 문장의 7, 80%를 알아서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수준으로 고3에 올라오면 지문의 단어와 문장을 5, 60%밖에 알지 못하니 탈탈 털리는 것은 당연지사.

정리하자. 수능영어는 수능+영어인데, 우선 이 영어 실력부터 고3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이를 활용해서 '수능독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단계로 치면 단어 암기 → '문장 해석' → '지문 독해'가 되겠다. 등급이 낮을수록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의 비중이 훨씬 높아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좀 더 지문 자체의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단어 암기

지문 독해

문장 해석



키스 가이드 북



INTRO B: 무엇으로 수능영어를 공부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외운 단어로 열심히 문장 해석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영어'가 되는 상태에서 수능영어 지문을 독해하면 된다. "아니 쌤, 그러면 다시 단어장 파고 구문책 파야 하는 건가요? ㅠㅠ" 노노. 단어장만 파고 구문책만 파는 행위는 고2 때까지 하는 것이고, 절평영어 70점 이상인 고3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다. 섀티가 원하는 것은 '총체적 학습'이다. 무슨 얘냐, 단어장 따로, 구문책 따로, EBS 교재 따로.. 이런 게 아니라, EBS 및 기출 지문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어휘, 해석 학습도 하자는 얘기다.

'총체적 학습'

현 수능영어 체제에서는 이 총체적 학습을 평가원 기출과 EBS 지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EBS 연계율이 50%이다.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직접연계가 아예 없을지, 아니면 몇 개는 그대로 나올지는 지금 섀티가 이 책을 쓰는 시점에는 알 수가 없다. 6월 평가원을 까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50%가 되면서 간접연계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2021학년도까지의 70% 연계도 간접연계로의 전환이라고 바뀐 후에도 직접연계 7개는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몇 개 지문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문 몇 개가 그대로 나온다면 EBS 학습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고, 나오지 않고 전부 소재 연계로서 비슷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EBS를 공부하는 것이 수능날 '데자뷰(이 지문 본 것 같은데?)'를 느끼기에 좋을 것이다.

키스 가이드 북



따라서 EBS 지문들로 부단히 단어를 외우고 문장 해석 연습을 하며 '영어 공부를 하며 영어 실력을 늘리면, 수능날 그 똑같은 지문, 혹은 비슷한 지문이 보일 것이고 이로 인한 이 심리적, 시간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EBS로 어휘와 해석을 늘리고, 마지막 단계인 '지문독해'를 수능 기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물론 수능기출 지문들도 꼭 단어와 해석을 챙겨야 한다). 당연하다. 수능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기에 '수능 지문'은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가를 알려면 수능 기출로 해야 한다. 이미 고3 수준의 단어, 해석력을 갖추었다면 이 마지막 단계는 '금방'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능영어 자료는 EBS 교재와 기출이라 할 수 있고, 둘의 비율은 5:5가 적당하다.

EBS 5 기출 5

선티 수업의 중점은 '지문독해'에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은 전적으로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강으로 구문 강의를 촬영할 것이고 이를 들으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누구의 구문 강의를 듣든 들은 후 그 책의 문장들을 스스로 '회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해석하는 걸 봐서는 늘지 않는다. 직접 계속 해석해서 체화가 되어야지. 반면 지문독해는 혼자하기가 힘들다. 이제 단어도 알겠고 문장 해석도 어느정도 하겠는데,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 길을 명확하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내 역할이며, 그것이 KISS LOGIC이라 할 수 있겠다. KISS LOGIC에 관해서는 '독해' 부분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어휘, 해석, 독해 순으로 한 영역씩 찬찬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영어연구소

Chapter 1

어휘

1 What

2 Where, When

3 How

키스 가이드 북



Chapter 1. 전국 수험생 99.9%는(한 0.1% 사이고는 있을 수 있다) 영단어 암기를 싫어한다. 나도 싫다. 내가 절실한만큼 외우는 거다. 그 대학에 절실한만큼. 영단어를 외우는 것은 사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역사 과목처럼 이것을 외우면 나오겠지라는 확신이 잘 없고 범위가 끝도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 이 영단어야 말로 시험 100점을 받으려면 150을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 막연함을 견디고 외우는 것은 절실함밖에는 없다. 자신이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면, 응당한 노력을 하자. 특히나 의치한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수능영어 어휘 암기는 baby인 수준의 암기를 대학에서 할 테니 아 지금은 감사한거구나 꺾고 마음을 고쳐먹도록 하자. 영어 등급 안 나와서 영어를 임의로 한 등급 올렸을 때 정시 지원칸 색깔이 빨주노에서 초록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나중에 울지 말자.

1. What. 무엇을 외울 것인가.

앞서 상술했듯 본인이 절평영어 70점 이상 수능 수험생이라면 따로 단어장을 추천하지 않는다. 단어장 좀 그만 사자. 그래도 굳이 하나를 갖고 싶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수능영어 단어장, 없다면 올해 EBS 연계교재 단어장을 추천한다. 이제는 단어장에 그만 집착하고, EBS 지문에서 그리고 기출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따로 적어 외우도록 하자. 그것이 나에게 최적화된(optimized) 단어장이며 최고의 단어장 아닌가? 마주치는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닥치는대로 외우도록 하자. 단어는 총알이다. 다다익선이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든 외우는 단어를 줄여보려고, '각주 단어도 외워야 해요?'라고 물어보는데, 케바케다. 정말 잘 안 쓰이는 자잘한 단어인데 각주라면 안 외워도 되지만, 기출이나 EBS에서 분명 왕왕 마주치고 각주가 아닐 때도 있는데 각주인 단어도 있다. 따라서 이걸 구분하면 좋은데.. 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고, 등급이 1, 2등급 정도 나온다면 나름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해당 단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인지, 특수한 단어인지.





'나만의 단어장'

2. Where. When. 언제, 어디서 외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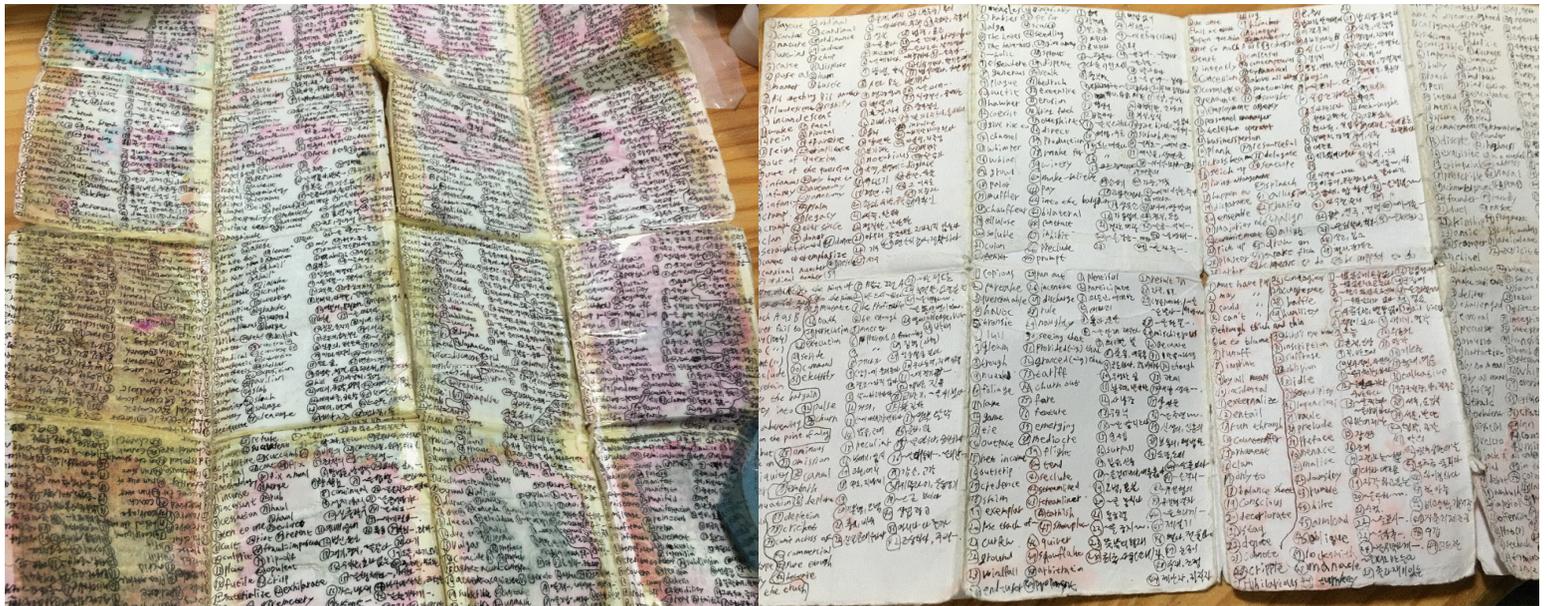
Anywhere. Anytime.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본 중학교 단어 및 고1 단어까지 외워야겠지만, 현 수능영어 3등급 이상 정도라면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따로 시간내는 시간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 EBS, 기출에서 따로 옮겨적은 때'뿐이다. 내가 모르는 단어만 적혀 있는 단어장이 나에게 최적화된 단어장이 아닌가? 뒷장에 보면 셉티가 수험생 시절 외웠던 단어장이 있다. 수능 전과목 거의 만점을 받았던 고등학교 선배가 전수해준 것으로, A4 용지를 16등분으로 접어서 하이테크 0.25로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한글 뜻을 적은 것이다. 엄지로 한글 뜻을 가리고 외우면 된다. 따라올테면 따라와 봐 ㅎㅎ. 이 자신이 모르는 단어만 적혀있는 단어장을 '언제 어디서나' 외우는 것이다. 이동할 때, 쉬는 시간에, 쌤이 판소리를 길~게 하실 때, 화장실에서(제일 잘외워집니다.), 셉티는 밥먹을 때도 양치할 때도 외웠는데 이걸 소화 안된다는 친구들도 있으니 취사선택하시고.

그럼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해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해요. 자신이 절실하다면. '단기간에 급상승하고 싶다면.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무난 무난하게 공부해서~ 수능에서 무난한 점수 받고 싶다~ 하면 안 하셔도 된다.

키스 가이드 북



세상에 군대 빼고 강제는 없다. 이미 자기는 중학교, 고1,2 시절 단어 미친듯이 외워서 어휘력이 수능 수준을 상회한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적당히 유지만 하시면 된다. 이런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신이 단어가 애매하다 느끼는 모든 친구들은 자투리 시간에 자신만의 단어장을 본다. 영단어가 지겹다면 국어 문법이나 탐구 암기 영역을 가끔 외워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자신에 대해 '대견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네라는 이 느낌, 나를 수능까지 이끌어주고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3. How. 어떻게 외울 것인가.

선티는 '어원 활용'과 '연상 활용' 둘 다 적극적으로 하기를 추천한다. 둘 중에 뭐가 좋고 나쁜 건 없다. 그저 자신이 잘 외워지는 것으로 확실히 외우면 장땡.

키스 가이드 북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일수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input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원보다는 연상법을 더 추천하는 편이다. 어원 활용도 해야 하지만, 모든 어원을 알 수도 없고 어원을 활용하기 힘든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연상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로 잘 안 외워지는 단어와, 헷갈리는 단어들을 외울 때 사용한다.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수능 영어 시험을 보는 직전까지, 자투리 시간에 단어를 외워야 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3-A. 연상법.

대표적인 예로 788 영단어책이 가장 유명하다. 모든 단어를 연상해서 외울 순 없고 **헷갈리거나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단어를 보고 혹은 읽고 '자신'이 떠오르는 무언가와 연결해서 외우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이다. 그래야 평생 안 까먹는다. 예능 프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 서울대 치대 출신(중퇴하신 걸로 알고 있다!) 연예인 김정훈이 스페인어 단어를 이렇게 외우더라. 스페인어로 'nevar'가 '눈이 오다'는 동사인데, 딱 보니 '영단어 never'랑 비슷하네.. 지금은 여름이니까 눈이 절대(never) 오지 않지 이렇게 머리에 입력하는 거다. 저 프로가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김정훈은 이 단어를 안 까먹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 선티 통역장교 시절 아이비리그 출신 동기도 군사용어 영단어를 외우는데 이걸 뭐 어원도 없고 그냥 쌍 acronym(두문자어)였기에 이렇게 외우더라. 터프한 친구라 욕을 섞어가면서 외우더라. 그러니 이 방식은 무슨 수준 낮은 무식한 친구들만 하는 방법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자.

키스 가이드 북



션티는 수험생 때 **ethics(윤리)**와 **ethnics(민족)**이 너무 헷갈려서 보다가(지금 보는 너도 헷갈리고 있다면, 어휘 더 탄탄히 해야 한다), 둘이 뭐가 다르지, 민족은 n이 있으니, n을 보고 수학의 극한이 떠올랐고, 그럼 n은 많다는 거네.. 하나의 민족은 사람 수가 많지 ㅎㅎ 이렇게 구분하고 10년이 흐른 지금도 기억한다. 남이 만들어준 연상법도 나쁘지 않지만(가사 단어 장처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기억해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 연상 고리를 만드는 재미를 느끼며 외우도록 해보자.

Ethnic

Ethic



3-B. 어원법.

접두어 + 어근 + 접미어. 영어단어는 rough하게 얘기하자면 앞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연상법으로 마구잡이로 최대한 넣으셔야 하지만, 어느 정도 외우게 되면 단어의 '조합'이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우선 접두어, 접미어가 보이기 시작한다. 제일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un, in'이 붙으면 반대, re는 '다시'라는 것부터해서 'pre'나 'fore'이 붙으면 '미리'라는 뜻이고 접미어의 경우는 ness, tion, sion, ty가 붙으면 명사이고 less가 붙으면 '~가 없는'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접미어는 해당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많다. 아래 수능 수

준에서 필요한 접두어, 접미어, 어근을 정리해놓으니, 우리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자주 자주 봐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하자.

키스 가이드 북



3-B-a. 접두어(prefix):

주로 의미를 반대, 부정으로 만든다. 혹은 '시간, 방향, 정도'의 의미를 더해준다.

The most common prefixes. 출처의 페이지를 선타가 수능에 맞게 가감, 해설.

(출처: <https://dictionary.cambridge.org/grammar/british-grammar/prefixes>)

prefix	meaning	examples
anti-	against/opposed to (반대)	anti-government(반정부) anti-racist (반인종차별(주의))
auto-	self(자신)	autobiography(자서전) automobile(자동차)
de-	reverse or change (역 or 변화)	decontaminate(오염을 제거하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demotivate(의욕을 꺾다)
dis-	reverse or remove(역 or 제거)	disagree(동의하지 않다), displeasure(불쾌) disqualify(자격을 박탈하다)
down-	reduce or lower(감소 or 낮춤)	downgrade(격하시키다) downhearted(낙담한)
extra-	beyond(넘어선)	extraordinary(비상한) extraterrestrial(외계의)
hyper-	extreme(극도의)	hyperactive(활동 과잉의) hypertension(고혈압)
il-, im-, in-, ir-	not(아닐 불(不))	illegal(불법적), impossible(불가능한) insecure(불안정한), irregular(불규칙적인)



키스 가이드 북



prefix	meaning	examples
inter-	between(사이의, 상호의)	interactive(상호작용하는) international(국제적인)
mega-	very big(매우 큰) important(중요한)	mega-deal (대형 거래)
mid-	middle (중간)	midday(정오), midnight(자정) mid-October(10월 중순)
mis-	incorrectly(부정확하게) badly(나쁘게)	misaligned(어긋난) mislead(오도하다(잘못 이끌다)) misspelt(철자가 잘못된)
non-	not (아닐 때(未))	non-payment(미지급) non-smoking(금연)
over-	too much(과도한)	overrate(과대평가하다) overcharge(금액을 많이 청구하다)
out-	go beyond(넘어가다)	outdo(능가하다) out-perform(더 잘하다) outrun(더 빨리 달리다)
post-	after (후(後))	post-election(총선 후) post-war(전후)
pre-	before (전(前))	prehistoric(선사시대의) pre-war(전쟁 전의)
pro-	in favour of(~을 찬성하여, 친(親))	pro-democracy(친민주주의)
re-	again(다시, 재(再))	reconsider(재고하다(다시 고려하다)) redo(다시 하다)
semi-	half(반(半))	semicircle(반원) semiconductor(반도체)

키스 가이드 북



prefix	meaning	examples
sub-	under, below(아래)	submarine(잠수함) sub-Saharan(사하라 이남)
super-	above, beyond(위)	super-hero(슈퍼히어로) supermodel(슈퍼모델) (히어로, 모델 중 top이라는 의미)
tele-	at a distance(멀리서 (현대에선 '위성, 전파'의 의미))	television(텔레비전) telepathic(텔레파시의)
trans-	across(가로질러)	transatlantic(대서양 횡단의) transfer(옮기다(이전, 전이))
ultra-	extremely(극도로, 초(超))	ultra-compact(초경량) ultrasound(초음파)
un-	remove(제거하다), reverse(역) not(아닐 불)	undo(되돌리다), unpack(짐을 풀다) unhappy(불행한)
under-	less than(~보다 덜한) beneath(아래의)	undercook(덜 익히다) underestimate(과소평가하다)
up-	make or move higher(더 높게 만들다)	upgrade(업그레이드하다) uphill(오르막의)

키스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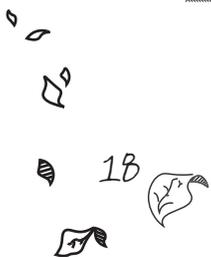
3-B-b. 접미어(suffix): 주로 '품사'를 변화시킨다.

Common suffixes and examples. 출처의 페이지를 셀타가 수능에 맞게 가감, 해설.

(출처: <https://dictionary.cambridge.org/grammar/british-grammar/suffixes>)

Noun suffixes(명사 접미어)

suffix	examples of nouns
-age	baggage(짐), village(마을), postage(우편 요금)
-al	arrival(도착), burial(매장)
-ance/-ence	reliance(의존), defence(방어), insistence(고집, 주장)
-dom	boredom(지루함), freedom(자유), kingdom(왕국)
-ee	employee(직원), trainee(훈련생, 교육생)
-er/-or	driver(운전자), writer(작가), director(감독)
-hood	brotherhood(형제애), childhood(유년기), neighbourhood(이웃지역)
-ism	capitalism(자본주의), racism(인종차별주의)
-ist	capitalist(자본주의자), racist(인종차별주의자)
-ity/-ty	brutality(야만성), equality(평등), cruelty(잔혹함)
-ment	amazement(놀람), disappointment(실망), parliament(의회)
-ness	happiness(행복), kindness(친절함), usefulness(유용함)
-ry	entry(진입), ministry(정부부처), robbery(강도)
-ship	friendship(우정), membership(회원), workmanship(솜씨)
-sion/-tion/-xion	expression(표현), population(인구), complexion(안색)



키스 가이드 북



Adjective suffixes(형용사 접미어)

suffix	examples of adjectives
-able/-ible	drinkable(마실 수 있는), portable(휴대용의), flexible(유연한)
-al	brutal(야만적인), formal(공식적인), postal(우편의)
-en	broken(깨진, 고장난), golden(금으로 된), wooden(나무로 된)
-ese	Chinese, Japanese, Vietnamese
-ful	forgetful(잘 까먹는), helpful(도움이 되는), useful(유용한)
-ic	classic(일류의, 전형적인), Islamic(이슬람의), poetic(시적인)
-ish	British, childish(유치한), Spanish
-ive	active(활동적인), passive(수동적인), productive(생산적인)
-ian	Canadian, Malaysian
-less	homeless(집 없는), hopeless(희망 없는), useless(소용 없는)
-ly	daily(매일의), monthly(매달의), yearly(매년의) *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자.
-ous	cautious(조심스러운), famous(유명한), nervous(불안한)
-y	cloudy, rainy, windy

키스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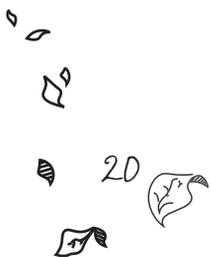


Verb suffixes(동사 접미어)

suffix	examples of verbs
-ate	complicate(복잡하게 하다), dominate(지배하다) irritate(성가시게 하다)
-en	harden(굳다, 굳히다), soften(부드럽게 하다), shorten(줄이다)
-ify	beautify(아름답게 하다), clarify(명확하게 하다) identify(확인하다, 식별하다)
-ise/-ize	realise(깨닫다, 실현하다) industrialize(산업화하다)(-ise is most common in British English; -ize is most common in American English)

Adverb suffixes(부사 접미어)

suffix	examples of adverbs
-ly	calmly(평온하게), easily(쉽게), quickly(빠르게)
-ward(s)	downwards(아래로), homeward(s)(집으로 향하는), upwards(위로)
-wise	anti-clockwise(시계 반대방향으로), clockwise(시계 방향으로)



키스 가이드 북



3-B-c. 어근: 단어 뜻의 핵이라 보면 되겠다. 아래 리스트 정도면 수능으로는 차고 넘친다.
 여러번 봐서 내 것으로 만들자.

Greek Root Words

Root	Meaning	Examples
anti	against(반대, 저항)	antibacterial(항균의), antidote(해독제), antithesis(대조, 대립)
ast(er)	star(별, 행성)	asteroid(소행성), astronomy(천문학), astronaut(우주 비행사)
aqu	water(물)	aquarium(수족관), aquatic(수생의)
auto	self(자신, 스스로)	automatic(자동의), automated(자동화된), autobiography(자서전)
bio	life(생명)	biography(전기), biology(생물학), biodegradable(자연분해되는)
chrome	color(색)	chromosome(염색체)
chrono	time(시간)	chronic(만성적인), synchronize(동시 발생하다, 동기화하다) chronicle(연대기)
doc	teach(가르치다)	document(문서, 기록하다), docile(유순한), doctrine(교리)
dyna	power(힘)	dynasty(왕조), dynamic(역동적인), dynamite
geo	earth(지구, 땅)	geography(지리학), geology(지질학), geometry(기하학)
gno	to know(알다)	agnostic(불가지론자), acknowledge(인정하다)
graph	write(쓰다)	autograph(서명), graphic(그래픽의), demographic(인구학의)
hydr	water(물)	dehydrate(탈수시키다), hydrant(소화전), hydropower(수력)
kinesis	movement(움직임)	kinetic(운동의), photokinesis(광활동성)
logos	word, study(단어, 공부)	astrology(점성술), biology(생물학), theology(신학)
path	feel(감정)	sympathy(동정), empathy(공감), antipathy(반감), pathetic(불쌍한) apathy(무관심)

키스 가이드 북



Root	Meaning	Examples
phil	love(사랑)	philosophy(철학), philanthropy(자선, 박애)
phon	sound(소리)	microphone(마이크), phonograph(축음기), telephone
photo	light(빛)	photograph(사진), photocopy(복사), photon(광자)
schem	plan(계획)	scheme(계획), schematic(도식적인)
syn	together(함께) with(같이)	synthetic(합성의, 종합적인), photosynthesis(광합성)
tele	far(먼)	telescope(망원경), telepathy(텔레파시), television

Latin Root Words

Root	Meaning	Examples
ab	to move away(멀어지다)	abstract(추상적인), abstain(절제하다), aversion(혐오)
audi	hear(듣다)	audible(들을 수 있는), audience(청중), auditorium(강당)
bene	good(좋은, 선)	benefit(이익), benign(상냥한), benefactor(후원자, 자선가)
brev	short(짧은)	abbreviate(축약하다), brief(간결한)
circ	round(둥근)	circus, circulate(순환하다)
dict	say(말하다)	dictate(구술하다, 지시하다), dictionary(사전)
duc	lead, make(이끌다, 만들다)	deduce(추론하다), produce(생산하다), educate(교육하다)
fund	bottom(바닥, 기반)	founder(창립자), foundation(기반), funding(자금 제공)

키스 가이드 북



Root	Meaning	Examples
gen	to birth(낳다)	gene(유전자), generate(발생시키다), generous(관대한)
jur	law(법)	jury(배심원단), justice(정의), justify(정당화하다)
lev	to lift	elevate(올라가다), leverage(영향력)
log, logue	thought(생각)	logic(논리), apologize(사과하다), analogy(비유, 유추)
luc, lum	light(빛)	lucid(명료한, 뚜렷한), illuminate(비추다), translucent(반투명한)
manu	hand(손)	manual(수동의, 육체노동의), manipulate(조작하다)
mis, mit	send(보내다)	missile(미사일), transmit(전달하다), permit(허락하다)
omni	all(모든)	omnivorous(잡식성의), omnipotent(전능한)
pac	peace(평화)	pacify(진정시키다), pacific(태평양), pacifist(평화주의자)
port	carry(나르다)	export(수출하다), import(수입하다), important(중요한)
scrib, script	to write(쓰다)	script, prescribe(처방하다), describe(묘사하다)
sens	to feel(느끼다)	sensitive(민감한), sensible(분별있는), resent(분개하다)
terr	earth(지구, 땅)	terrain(지형), territory(영토), extraterrestrial(외계의)
vac	empty(빈)	vacuum(진공의), vacate(비우다), evacuate(대피시키다)
vid, vis	to see(보다)	video, vivid(생생한), invisible(보이지 않는)

3-C. 중얼거리면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뺨 손으로 쓰면서 외워야 하나요?' 요런 것인데,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에 달린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반복해서 쓰며 외우는 것을 그리 추천하진 않는다. 손도 아프고 ㅎㅎ. 섀티는 '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anytime, anywhere'와 일맥상통한다.

키스 가이드 북



우리가 영어단어를 외우는 시간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기다리면서, 화장실에서 같은 곳이다. 어차피 쓰면서 외울 수도 없다. 이럴 때 속으로, 혹은 사람이 근처에 없다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외우자. Compatible, 양립 가능한. Compatible, 양립 가능한. Compatible, 양립 가능한. 양립 가능한이 무슨 의미이지..? 아 '조화롭다'는 뜻이지. 생각하면서. 이 때 나름대로 '정확한 발음'으로 중얼거리며 외우면 당연히 듣기에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대학 가서서 스피킹에도 알게 모르게 다 밀거름이 되는 것이니,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4.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외울 것인가.

많은 친구들이 단어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적지 않은 친구들이, '단어 모르는 게 없는 거 같은데 해석이 느리고 안된다...' 하는데, 정말 그럴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다. 단어를 안다고 할 때는 단계가 있다. 어떤 단어를 보고, 몇 초 고민하고 그 단어 뜻을 얘기하면 벌써 그 단어는 아는 게 아니다. 그냥, '친숙한' 거다. 그냥 보자마자 0.1초만에 정확한 품사와 뜻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대충' 외우고서 '대충' 해석하고, '대충' 시험 보면, '대충' 등급 나온다. 확고한 1등급 나오시려면 0.1초만에 그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떠오를 때까지 지겹도록 보셔야 한다. 그래야 시간 부족이 안 생기고, 확실하게 독해가 된다.

키스 가이드 북



지금까지 한 단어에 대한 얘기는 사실 대부분 다 아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내 설명과 정리가 여러분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와닿았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지금 영어가 발목을 잡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정말 확고한 1등급이 아니라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단어 외우자.** 그 겸손함이 수능에서 확실한 1등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기 영어 조금 한다고, 대충, 모르는 단어 나와도 통치고 넘어간다든지 그냥 유추하면 되지, 이런 태도로는 1등급이 불안하다. 결국에는 대의파악, 빈칸, 요약 선지의 단어를 정확히 몰라 틀리는 경우가 많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은, 단어 노출 정도가 줄어들수록 아는 단어를 까먹기 마련이고, 앞서 언급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마련이다. **수능까지 겸손하면, 결실을 맺을 것이다.**

The worst crime is faking it.

가장 큰 죄악은 허세부리는 것이다.

-커트 코베인-

